

## 제19호 한국TDK(주)김진식 과장



### 사랑, 행복. 그 시작은 안전.

**바** 알간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수놓고 코스모스 향기와 풀벌레 소리에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가을을 닮은 안전관리자, 김진식 과장을 한국 TDK주에서 만나보았다.

#### ■ 사고의 경험으로 안전과 인연

경남 창녕 출신인 김진식 과장은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처음에는 전기기사의 길을 걷던 중 1987년 카리프트 레일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보름가량 입원했던 적이 있다. 직접 사고를 경험하고 보니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안전을 해보자' 라고 결심하여 공부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적층세라믹 칩 캐패시터, 페라이트코어, 필터류 등을 생산하는 한국TDK(주)에서 약 15년간 가량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 ■ 안전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김진식 과장은 직원과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데 그의 메일 마지막에는 항상 '안전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항상 강조하는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그러한 무관심은 위험요인을 찾을 수도 없으며, 불안정한 요소를 감지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나와 남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의식으로, 사랑 속에 싹트워진 안전의식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피며, 안전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로 인한 무사고는 자기 자신의 행복은 물론 가정, 회사, 사회의 행복으로까지 퍼져 나가는 것이다.

#### ■ 진실된 안전을 위해 노력할 터

통계적으로 사고를 냈던 근로자가 같은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김진식 과장은 사고당사자와 1:1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안전관리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김진식 과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내세우기 위한 안전이 아닌 실질적이고 진실된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도 바쁜 걸음을 옮겼다. 

〈성호연기자〉